

## 행동하는 믿음 14.

### 위기의 때! '절대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재정'을 위해 기도하라.

#### 1.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자가 받을 복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된 곳은 연약한 사람들(절대적 어려움)이다. 어렵고 약한 자들,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에게 맞추어져 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연약한 사람을 돕는 구제가 강조되어 있고, 구제는 사랑의 실재적 표현이기도 하다.**

[마태복음 25:32-36, 40]

32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33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34 그 때에 임금의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35 너희는, 내가 주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40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마지막 때 임금이 와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장면이다. 심판의 기준이 너무 선명하다. 심판을 통해 '양과 염소'가 나뉜다. 심판 전까지는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겉모습으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지막 때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양으로 가려진 사람들은 누구인가?

(1) **35절** - 이들은 '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도운 사람들이다. 여기에 나열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즉,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다.

#### \* 절대적 어려움과 상대적 어려움

ㄱ) **절대적 어려움** : 도움을 주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

ㄴ) **상대적 어려움** : 비교로 오는 어려움 (상대적 빈곤감 등)

(2) **34절** -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 놀라운 표현이다. 예수님은 이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말한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가 분명하다.

(3) **40절** -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을 돕기 위한 복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일을 땅에서 하신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절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는 성경의 관점이다. 이들은 남이 아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라고 말씀하신다. **절대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추상적 사랑이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의 형태로 나타난다.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를 돕고 섬기는 것이다. **'섬김'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일을 말한다.**

#### 2. 가난한 자를 도울 재정

성경은 이 땅의 경제 시스템을 존중한다. 하나님도 이 땅의 경제 시스템인 '재정'을 통해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정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사람과 공동체를 사용하신다.

[사도행전 2:44-45]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사도행전 4:34-37]

- 34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35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었다.  
 36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37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라. 이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34절) 그 이유는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기 때문이다.(행 2:45) 사도들의 발 앞에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판 돈을 가져왔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브로 사람 레위인 바나바' 였다. 혹자는 말하기를 초대교회의 생활이 '원시 공산주의'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합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은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재정이라는 것이다.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돕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한 공동체와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돕게 하신다는 것이다.

### 3. 아가보

[사도행전 11:28-30]

- 28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29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30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던 교회였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교회가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은 갑자기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다.(글라우디오 황제 때) 예상하지 못한 기근이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처럼 온 세계에 있었던 기근이다. 기근은 '절대적 어려움'을 말한다. 도움을 주어야 살 수 있는 때를 말한다. 성령은 이 일을 위해 성령 충만한 아가보 라는 사람을 통해 온 세계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 말한다.

이때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대로 실행했다. 놀라운 장면이다. 하나님은 기근과 같은 '절대적 어려움'에 있는 사람과 공동체, 나라를 돕기 위한 재정을 일으키신다.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었다. 위급한 일의 생명력은 타이밍이다. 신속함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 일을 주관하는 사도들의 권위와 그로 인한 공동체의 질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 4. 재정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라

성도와 교회가 재정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절대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상황을 넘어가지 않으신다.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꽃을 돌보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저희를 통해서 '절대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주소서" 재정의 돌파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할 때이다.

### 5. 오병이어의 축복과 열두 광주리

[마태복음 14:14, 19-20]

- 14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19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주었다.  
 20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오병이어뿐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재정의 영역 가운데 하늘의 축복의 권세를 가져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14절의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절대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신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이들을 도울 재정을 일으킬 하늘의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하자. 열두 광주리가 남은 재정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자. 내가, 우리 가정, 교회와 일터가, 하늘의 재정의 축복을 받도록 사모하여 기도하자.